

10 조화(하모니)로서 영혼론

A4 407b27-408a24

I 원전

1. 또 다른 선대들이 전해주는 영혼론이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이론에 못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수용한 이론이다.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펼치는 논의에서도 이러한 이론을 표출하였다. 이 선대들은 조화(ἁρμονία)가 곧 영혼이라고 하였다. 407b27-30

2. 왜냐하면 (a)조화는 대립자들의 혼합(χρᾶς) 또는 결합이고, (b)신체(σῶμα)는 대립자들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¹⁾ 그런데 조화는 혼합된 것들의 일정한 비율(λόγος) 또는 복합체(σύνθεσις)²⁾이지만, 영혼은 결코 이런 것들일 수 없다. 407b30-34

3. 게다가 운동자(운동을 일으키는 것)는 조화에 속할 수 없다. 그럼에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운동자가 영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하였다. 407b34-408a1

4. 건강의 관점에서³⁾ 대체로 영혼보다는 신체의 양호한 상태를 하모니라고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영혼의 양태들(πάθη)과 기능들(ἔργα)⁴⁾을 조화로써 설명하려고 한다면, 분명 그런 것들을 적합하게 이해하기는 정말 어렵다. 408a1-5

5. 나아가 조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염두에 두고 있다. 가장 적합한 의미는 공간적 크기와 관계가 있는데 공간적 크기는 운동과 배치(θέσις)를 갖고 있다. 여기서 하모니는 각 부분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배열되고 결합해서 결국 동일한 것들은 어느 것도 달아나지 못하게 잘 짜인 결합체이다. 또 다른 의미의 하모니는 앞의 의미로부터 도출되는데, 결합된 것들의 비율을 나타낸다.⁵⁾ 그러나 이런 의미규정은 어느 것도 영혼을 묘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신체의 부분들의 결합이라는 의미에서 영혼이 하모니라는 주장은 아주 쉽게 논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체를 구성하는 복합체들의 부분들이 많고 다양한 결합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성은 신체의 어떤 부분들이 결합한 것이고, 감각능력이나 욕구능력(ὄρεκτικόν)은 또 신체의 어떤 부분들이 결합한 것인가?⁶⁾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각각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는가? 한편 영혼을 결합체들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살을 구성하는 결합체의 구성비와 뼈를 구성하는 결합체의 구성비는 다르기 때문이다. 신체의 각 부분들이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체이고 각각의 경우 결합체의 비율

1) 영혼-하모니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피타고라스학파에 속한 이들이다.

2) 영혼-하모니론의 이론에서 하모니는 1) 결합체의 비율이거나 2)결합체다. 비율은 로고스(λόγος)로서, 로고스는 이성, 비율, 결합체의 법칙 등을 가리킨다. 결합체(σύνθεσις)는 적어도 두 요소나 또는 두 부분 이상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단일체를 이룬다.

3) 참고, *Metaphysics*, Z7, 1032b6; 건강은 냉과 열의 균형이다. 육체의 건강을 가리키는 하나의 덕목은 힘(체력)이나 육체의 아름다움이다.

4) 양태들(πάθη)은 영혼의 한 부분에서 일어남, 또는 겪는 것 예컨대 공포나 측은함 등이고, 기능들(ἔργα)은 영혼의 한 부분들에 능동적인 특징이다. 양태들은 수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부여받음’이고 기능들은 능동이어서 ‘어떤 행동을 가함’이다.

5) 조화의 두 의미로서 하나는 공간적 크기를 가진 물체(σώματα φυσικά)로서 결합체를 일컫는다. 수학적 요소가 빠져 있다. 또 하나는 결합체의 법칙 또는 비율로서 신체의 경우 각 조직체에 적용할 수 있다. 각 조직체들 예컨대, 육체의 살, 다리, 눈 등이 일정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조직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 어디에서 비율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6) 영혼이 신체의 각 부분들(기관들)이 모인 결합체라면, 영혼을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들은 신체의 어떤 부분들이 모인 것들인가? 지성은 신체의 어떤 부분들 예컨대 뇌의 어떤 부분이 모여 결합한 것이고, 감각은 또 신체의 어떤 부분이 결합한 것인가를 묻고 이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답변이다.

이 하모니 즉 영혼이라면, 신체 전반에 퍼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 수 있고, 각 신체마다 각각의 영혼을 가질 수 있다. 408a5-18

6. 여기서 우리는 엠페도클레스의 이론에 의혹을 제시할 수 있겠다. 그는 신체 부분들은 일정 비율의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 이 비율은 영혼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 본래 부분들이 갖고 있는 것인가? 408a18-21

7. 아니면 친화(φιλία)는 어떤 것이건 모든 결합체들의 원인인가? 아니면 일정한 비율을 갖춘 결합체들의 원인인가? 친화는 비율 그 자체인가? 아니면 비율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하모니와 연관된 이론에서 제기되는 문제이다. 408a21-24

8. 그런데 만일 영혼이 결합체 이외의 다른 것이라면, 살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본질이 사라짐과 동시에 왜 영혼도 사라지는가? 게다가 각 부분이 영혼을 가지고 있음에도 영혼이 결합체의 비율이 아니라면, 영혼이 떠날 때 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408a24-28

9. 이런 논의에 따르면 영혼은 하모니일 수 없고 원으로 순환 운동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영혼은 우연히(κατὰ συμβεβηκός) 움직일 수 있고⁷⁾ 스스로 운동할 수도 있다.⁸⁾ 예를 들어 영혼이 거주하는 곳이 움직이고 또 그것이 영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에 우연히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방식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영혼이 공간에서 운동할 수는 없다. 408a29-34

II 주요 개념

하모니(ἁρμονία)는 일정한 비율을 가리키거나, 일정한 비율로 잘 조직화된 결합체이다. 초기 자연철학자들 중에서 엠페도클레스는 지, 수, 화, 풍의 4원소와 친화와 불화의 두 원리를 주장하였다. 비율을 나타내는 하모니는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료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하모니는 형상에 더 가깝다.

피타고라스학파나 플라톤은 복합체의 비율을 수로 환원한다. 그 외의 사람들은 복합체 자체를 반드시 수로 환원하지 않더라도 하모니로 보고 있다.

결합체, 또는 결합체의 비율에 대해서 신체의 부분들은 그 비율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영혼의 부분들 즉 지성, 감각, 욕구 등으로 구성된 결합체에 대해서도 신체와 같이 비율을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III 토마스 아퀴나스 주석

선대의 전통 이론인 하모니로서 영혼론을 소개하고(1-2), 이어서 영혼-하모니론을 논박하고(3-8), 그 이론의 귀결을 요약한다(9).

1. 플라톤과 비슷한 맥락에서 영혼과 하모니를 바라보는 선대들의 견해가 있다. 플라톤은 수적인 하모니에 국한해서 영혼은 수들의 하모니라고 했지만, 이 선대들은 수 이외에 다양한 복합체나 결합체 등 대립자들의 하모니도 영혼이라고 보았다.

초기 자연철학자들의 관심은 물질 즉 질료인이다. 데모크리토스와 엠페도클레스는 형상인에 가장 가깝게 접근했다. 엠페도클레스가 제시한 원리는 6개인데, 4원소의 질료인과 2개의 형상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개의 형상인은 '친화'(사랑)와 '불화'(투쟁)이다. 그리고 만물들은 4원소들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함으로써 존재한다. 이 비율이 하모니이며 형상이다.

7) 406a 30 이하; 운동은 영혼의 본질이 아니다.

8) 영혼의 운동은 자발성을 띤다.

2. 복합체에서 대립자들이 일정비율로 결합함으로써 하모니를 이룬다. 비율 자체가 하모니이고 복합체의 형상이다. 영혼은 일종의 질료가 아니라 형상이므로 하모니이다.

위에서 말한 하모니 이론에 대한 비판이 네 논변으로 되어 있다.

논변 1; 하모니는 소리와 연관해서 말하면 화성(和聲)이다. 화성은 일정한 비율로 환원할 수 있으므로 하모니는 비율을 뜻한다. 따라서 하모니는 1)복합체이거나 2)복합체안에 있는 비율이다. 그러나 영혼은 이런 것이 아니므로, 영혼은 하모니가 아니다. 그 이유는 하모니 이론을 주장하는 선대들의 입장에서 하모니는 우연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는데, 영혼은 사실 본질이기 때문이다.

3. 논변 2; 모든 철학자들은 영혼이 어떤 것을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러나 하모니는 어떤 것을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운동의 결과이거나 흔적이다. 예를 들어 현악기에서 화성(화음)은 현이 운동(떨림)해서 나온 결과이다.

4. 논변 3; 영혼이 하모니라면, 하모니를 잘 알면 영혼의 능력과 기능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하모니를 안다고 해서 영혼의 능력과 기능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좋아함이나 싫어함 등의 감정이나 인식은 대체 하모니의 어느 부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까? 차라리 건강의 관점에서 신체에서 하모니를 찾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신체의 주요 구성물이 적절한 비율로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하다고 하지 않는가.

5. 논변 4; 종종 하모니는 복합체 내부에서 볼 수 있다. 내부의 부분들은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이 잘 짜여 있어서 내부는 어떤 결합도 없다. 즉 부분들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되면 부분들의 집합체로서 전체는 하모니라고 부르고, 비율도 하모니라고 부른다.

그런데 부분들이 하모니를 이룬다는 의미에서 영혼도 하모니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신체의 각 부분들이나 기관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영혼의 부분들 즉 지성, 감각, 욕구 등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과 그 결합이 어떤 방식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결합체의 비율에 따른 방식으로 영혼이 하모니가 될 수 없다. 결합체의 각 부분들은 다양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뼈와 살 등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는 각종 부분들(기관들)은 비율이 꼭 같지는 않다. 부분들의 수 만큼이나 다양한 비율의 집합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부분들의 수 만큼 많은 영혼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부당하다.

6. 이런 맥락에서 엠페도클레스를 논박할 수 있다. 모든 신체가 일정 비율을 갖고 있고 그 비율이 하모니로서 영혼이라면, 영혼 자체가 비율인지 아닌지 물을 수 있다. 1)비율이면 앞의 논의처럼 한 신체의 여러 부분들이 있으므로 많은 영혼이 있게 된다. 2)비율이 아니면, 영혼은 하모니가 아닌 것이 된다.

7. 엠페도클레스에게 ‘친화’는 결합의 원인이고, ‘불화’는 분리의 원인이다. 그런데 ‘친화’는 모든 결합의 원인인가, 아니면 하모니를 이루는 결합에 한정된 원인인가? ‘친화’가 모든 결합의 원인이라면, 하모니의 원인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반면 ‘친화’가 오직 하모니로 결합하는 것의 원인이라면, 모든 결합의 원인과 하모니의 원인인 ‘친화’는 다를 것이다. 따라서 ‘친화’는 모든 결합의 원인이 될 수 없다.

8. 영혼이 곧 하모니라면, 신체에 대해서 이 양자는 상관관계가 성립한다. 즉 신체가 하모니를 잃으면 영혼을 잃고, 하모니를 유지하면 영혼도 유지된다. 그러나 하모니는 형상 그 자체가 아니라, 형상에 비춘 질료의 배열이다. 그래서 저 상관관계는 성립하지 않고, 질료의

배열이 유지 되는 한에서 형상도 계속 유지된다.

9. 영혼이 순환운동을 한다는 플라톤의 주장과 영혼이 하모니라는 엠페도클레스의 주장을 논박한 내용을 요약한다.

운동과 영혼의 관계를 두 가지로 정리한다. 1)영혼의 운동은 본질이 아닌 ‘우연의 운동’이다. 2)영혼은 스스로 운동한다.

우연의(per accidens) 운동은 배에 탄 선원의 움직임에 비유한 바 있다(). 배에 탄 선원은 배가 움직임에 따라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므로, 선원의 움직임은 우연의 운동이다. 영혼이 거주하는 신체의 운동에 따라 영혼이 움직이면 영혼의 운동은 ‘우연의 운동’이다. 영혼은 스스로 움직이되 신체를 움직이게 한다. 그러나 신체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장소 운동을 하지 않지만 영혼은 그러한 장소운동을 직접하지 않고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우연적으로’ 운동할 뿐이다.

11 스스로 운동하는 영혼

A4 408a34-408b31

I 원전

1.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검토함으로써 영혼이 운동하는 문제에 관해 더 나은 논의를 할 수 있다. 즉 고통을 받음, 기쁨을 얻음, 자신감을 가짐, 두려워함, 화가 남, 감각함 및 생각함 등을 검토함으로써 영혼의 운동 문제를 살펴볼 수 있겠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모두 운동(κίνησις)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영혼이 운동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408a34-408b4

2.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비록 고통을 받음, 기쁨을 얻음 또는 생각함(διανοεῖσθαι) 등이 분명히 운동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들 각각은 ‘운동을 부여받아’ 움직이는데, 이는 영혼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예를 들어 화가 남이나 두려워함은 심장이 그렇게(ὡδί, 운동을 부여받아)하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생각함은 그러한 기관(심장)이나 어떤 다른 기관이 그렇게(운동을 부여받아)하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408b5-9

3. 이런 운동들 중에서 어떤 것은 장소 이동이고, 어떤 것은 질적 변화이다⁹⁾(어떤 종류의 운동인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운동하는지는 별도로 다룰 문제이다.) ‘영혼이 화가 난다’고 말하는 것은 ‘영혼이 집을 짓거나 천을 짠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확하지 않다. ‘영혼이 측은함을 느낀다거나 어떤 것을 배운다거나 또는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영혼을 통해 그런 일을 겪거나 행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의 의미는 운동이 영혼 안에서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때는 운동이 영혼을 향해 가고 어떤 때는 영혼에서 시작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감각할 때, 밖의 사물로부터(ἀπὸ τῶνδῶν)¹⁰⁾ 들어오고, 기억한다는 것은 영혼에서부터 시작해서 감각기관에 일어나는 운동 또는 정지(μῶνῆ)이다.

408b9-18

9) 장소이동의 한 예는 심장의 고통이고, 질적변화의 한 예는 피가 식음이다.(J. 트리코, p.44-45)

10) 감각할 수 있는 특정 사물로서, 종종 운동자(τὰ κινῶντα)라고 불린다. 그래서 영혼을 향해 운동을 일으키는 작용인이다.(J. 트리코, p. 45)

4. 그러나 지성은 영혼 안에 있는 본질이지 쇠락(衰落)해 버리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만일 쇠락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주로 노년에 접어들어 허약해짐으로써 맞이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사실 노년에 일어나는 것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과 유사하다. 만일 노인이 건강한 젊은이의 눈을 회복한다면, 그는 젊은이처럼 볼 수 있을 것이다. 노쇠는 영혼이 겪는 무엇이 아니라, 술취함이나 질병에서 겪는 것처럼 영혼이 거주하는 곳¹¹⁾이 겪는 것이다. 생각함이나 숙고함은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쇠락함에 따라 더불어 쇠락하지만, 지성 자체는 결코 그런 쇠락을 겪지 않는다(*ἀπαθής*)¹²⁾. 생각함과 좋아함 또는 증오함은 지성의 양태(*πάθη*)가 아니라, 지성을 가지고 있는 한에서¹³⁾ 그 지성을 소유한 것의 양태이다. 따라서 지성을 소유한 것이 쇠락할 때, 기억도 멈추고 좋아함도 멈추게 된다. 그렇다면 기억과 좋아함은 지성에 속한 양태가 아니라, 소멸된 복합체(*τὸ κοινόν*)¹⁴⁾에 속한 양태이다. 그런데 지성은 아마 확실히 신적인 어떤 것이고 변화를 겪지 않는다.¹⁵⁾

따라서 이런 논의로부터 영혼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영혼이 움직일 수 없다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도 명백하다. 408b188-31

II 주요개념

쾌락과 고통, 화 등은 영혼에 속한 양태들이다. 따라서 영혼이 운동한다는 것과 이러한 양태들의 운동한다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선대들의 이론은 ‘양태들의 운동’을 근거로 곧 ‘영혼의 운동’을 이끌어내고 있다.

양태들의 운동은 오직 영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신체가 결합된 곳(*τὸ κοινόν*)에서 일어난다.

섭생이나 욕구활동으로서 운동은 자연적 또는 물질적 요소의 운동이고, 감각지각은 자연적 요소의 운동이 보다 덜 명확하다. 그리고 지성의 활동인 사고는 자연적 운동이 아니고 신체적인 운동과 결부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성의 활동은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변화도 겪지 않는다(*ἀπαθής*)

III 토마스 아퀴나스 주석

1. 영혼의 운동을 양태의 움직임에서 찾는 논변이다. 즐거움이나 고통, 화 등은 운동의 한 유형이다. 이런 양태의 활동을 근거로, 영혼이 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영혼이 즐거워한다’라는 양태의 활동을 근거로, ‘영혼이 운동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에 앞서 다룬 논변의 전제는, <모든 운동자는 스스로 운동한다>는 원리이다. 이 원리에 따라 신체가 운동함을 근거로 영혼이 운동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즉 영혼이 신체를 움직이게 한다면, 영혼은 스스로 운동한다는 것이다.

2. 아리스토텔레스는 양태 운동의 논변에 따른 난점들을 규명한다. 그는 상대방이 제시한 전제를 기반으로 논박을 펼친다. 플라톤주의자들은 기쁨, 슬픔, 화, 감각지각, 사고 등은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운동이고 이러한 양태들은 각자 고유한 기관을 가졌다고 생각하였다.

11) 신체.

12) 외부의 어떤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변화도 겪지 않는다.

13) 영혼과 신체의 결합체(*σύνολον*).

14) 영혼과 신체의 결합체로서 사람.

15) 지성은 다른 영혼의 활동양태들보다 더 우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마 확실히’는 아직 ‘지성’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음을 가리키는데, 이 문제는 C권에서 4장, 429a10이하에서 다룬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감각과 지성의 차이는 없고, 모든 종류의 영혼은 불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양태들의 이런 특징들을 수용하지만, 감각지각과 기쁨은 신체와 영혼의 복합체에 속하기 때문에 오로지 영혼에서만 일어나는 운동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플라톤주의자들의 논증은 이렇다. 1)기쁨과 슬픔 등은 운동이다. 2)이런 운동은 영혼에 속한다. 따라서 3)영혼은 운동한다. 그러나 기쁨 등은 본질적으로 운동이 아니다. 또한 운동이 영혼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제 2)도 수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영혼이 운동한다는 결론 3)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양태들이 운동이고 영혼에 속한다면, 그 영혼은 분명 신체와 연관되어 있다. 감각은 신체의 한 부분인 눈에서 일어나고, 분노는 심장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다. 이런 양태의 운동은 영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신체가 결합한 곳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다.

물론 이런 양태들은 영혼에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어, 영혼이 분노를 느낄 때, 심장이 혼란 상태에 빠지고 심장 주변의 피가 끓어오른다. 두려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체의 특정 부분이 죄어들면서 변한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경우 영혼 자체는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 예를 들어 심장과 같은 것이 운동한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지성의 활동인 사고만이 영혼의 고유한 활동으로서 다른 양태들과 구별하고, 사고는 신체와 함께하는 부분이 없다.

3. 이러한 양태들의 움직임은 영혼에서 발원하여 신체의 특정 부분에서 변화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 화를 낼 때, 심장 안과 그 주변에서 신체의 일부분이 움직인다. 그리고 심장에 의해 뜨거워진 피가 사지로 퍼져간다. 두려움에 떨 때, 심장이 오그라들고 차가워지며 창백해진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질적 변화 또는 양적변화일 수 있다.

물론 이런 양태의 운동은 어떤 종류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는 따로 다를 문제이다. 그러나 이런 양태는 영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과 신체가 결합된 곳에서 일어나는 것임이 틀림없다.

그래서 ‘영혼이 화를 낸다(운동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영혼이 직물을 찢거나 집을 짓는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정확하지 않다. 확실히 영혼은 이런 양태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원인이다. 집을 짓고 직물을 짜는 능력도 영혼 안에 있고, 능력을 행사하는 것도 영혼 안에서 나온다. 그러나 집을 짓는 것은 건축술이 아니라, 건축가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마찬가지로 집을 짓는 자는 영혼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영혼을 가진 사람의 움직임에서 영혼은 종착지가 되거나 출발점이 된다. 감각지각은 감각기관의 능력이 활동하여 외부 대상의 이미지와 개념을 영혼으로 옮겨온다. 즉 영혼은 종착지가 된다. 그런데 기억에서는 숨어있거나 잠재된 이미지나 개념을 드러내서 그것들을 통해서 외부대상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영혼은 출발점이다.

운동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1)본래의 의미에서 운동, 2)약간 덜 엄격한 의미의 운동 그리고 3)비유적인 의미의 운동 등으로 나뉜다.

1)운동 본래의 의미에는 섭생과 욕구활동이 있다. 섭생활동에서 물질적인 것들이 운동한다.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기관을 따라 이동한다. 이러한 운동은 성장이다. 여기서 섭생의 영혼은 능동적인 지위에 있고, 신체는 수동의 지위에 있다. 오감의 욕구활동에서는 누군가 어떤 것을 원할 때, 그는 일정한 변화를 겪는다. 복수하려는 욕망을 가질 때, 그에게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변화를 겪는다. 쾌락을 찾을 때 그는 기쁨을 만끽하는 변화를 겪는다. 이런 변화와 더불어 심장 주변의 피가 사지로 퍼져간다. 게다가 그가 원하는 것을 위해 장소를 옮겨 다니기도 한다. 자연적 존재의(esse naturale) 운동이다.

2) 약간 덜 엄격한 의미의 운동은 감각지각이다. 이 활동은 자연적 존재의 운동이 아니라 정신적 존재(esse spirituale)의 운동이다. 정신적 존재에 속한 시각에 감각대상이 들어옴으로써 지각 활동을 한다. 물론 시각능력이 신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감각지각이 일어날 때 물질적 변화도 겪는다.

3) 지성의 활동인 사고는 자연적 존재의 움직임이 아니다. 이런 사고활동은 잠재적으로 아는 것이 실제로 아는 것이 된다는 의미에서만 운동이다. 1)에서 운동의 주체는 미완성체가지만, 3)에서는 운동의 출발주체는 완성체이다.

1)과 2)는 오로지 영혼에만 속한 활동이 아니지만, 3)은 신체에 의존하지 않은 채 전적으로 영혼에 속한 활동이다.

4.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 널리 퍼져있는 견해, 즉 지성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영혼들은 불멸한다는 것을 수용한다.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지성이나 감각에 영향을 주는 모든 노쇠 현상이나 퇴락은 신체적인 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영혼 자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성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영혼들은 퇴락할 수 없다.

영혼자체가 퇴락했다면,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은 감각기관이 노쇠해졌을 때이다. 사실 영혼 자체는 노년이 되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노인이 새로운 눈으로 이식을 하게 되면 젊은이처럼 잘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년의 퇴락은 영혼 자체에 있지 않고 신체에서 비롯된다. 질병이나 만취도 신체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영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영혼은 운동의 주체일 수 없다. 그래서 선대들이 가리키는 의미의 운동에서 영혼은 ‘스스로 운동’하는 존재가 아니다.

12 스스로 운동하는 수로서 영혼 (A4 408b32- 409a30)

I 원전

1. 영혼을 언급하는 내용들 중에서 매우 불합리한 것은 영혼이 스스로 운동하는 수(數, ἀριθμόν)라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불가능한 점들이 들어 있다. 이런 난점은 우선 영혼이 ‘움직인다’(κινεῖσθαι)라는 주장에서, 그 다음에는 영혼이 수라고 주장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움직이는 특징을 가진 단일자(單一者, μονάδα)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이것은 나눌 수 없는 것(ἀμερῆ)이고 어떤 상이성(相異性)도 없는 것(ἀδιάφορον)인데, 무엇으로 그런 단일자를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는가? 만일 단일자가 운동자이면서 스스로 운동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틀림없이 상이성을 갖고 있다. 408b32-409a3

2. 게다가 그들은 선이 움직여서 면이 되고, 점이 움직여서 선이 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단일자가 움직여서 선이 될 것이다. 사실 점은 위치(θέσις)를 가진 단일자이고, 영혼의 수는 당연히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어서 위치를 갖고 있다.¹⁶⁾ 409a3-6

3. 더구나 수나 단일자를 수에서 이끌어낸다면, 남은 것도 역시 수이다. 그러나 식물이나 수많은 동물들은 부분으로 나뉘더라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고 동일한 종류의 영혼을 간직할

16) 로스(D. 로스, 주석서, p. 200)는 이 이론이 크세노크라테스의 것이 아니라 스페우시푸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Cherniss(*Aristotle's Criticism of Plato*, 396-7)의 논변을 인용한다. 그러나 로스는 이 두 사람의 문헌이 지나치게 짧은 단편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

것 같다.

409a6-10

4. ‘단일자’에 대해 말하건 ‘미세소체’(微細小體, *σώματα μικρά*)에 대해 말하건 아무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만일 데모크리토스의 구형 원자가 점이 되면 오직 양적인 것만 남게 되고, 연속체(*τὸ συνεχές*)¹⁷에서 그리하듯이 그 점에는 운동자와 피운동자가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자의 크기는 크건 작건 상관없이 없고, 오직 양적인 차이로 구분된다. 따라서 단일자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만일 동물의 경우 운동자가 영혼이면, 수에서도 운동자는 영혼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운동자이면서 피운동자인 것은 영혼일 수 없고, 오로지 운동자만 영혼이어야 한다.

409a10-18

5. 어떻게 단일자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역할을 하는 단일자와 그 외 다른 단일자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한다. 위치를 제외하고 나면, 주어진 하나의 단일자와 다른 단일자 사이에는 무슨 차이점이 있겠는가? 그런데 만일 신체 안에 있는 단일자들과 그 안에 있는 점들이 다르면, 두 종류의 단일자들(운동자로서 단일자와 점)은 동일한 자리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단일자는 점의 자리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이 같은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무한수가 없겠는가? 어떤 것의 자리(*ὁ τόπος*)가 나눌 수 없는 것이면 그 어떤 것 자체도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신체안에 있는 점이 영혼의 수이거나 또는 신체안에 있는 점들의 수가 영혼이라면, 어찌하여 모든 신체들은 영혼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모든 신체에는 점들이 있고 심지어 무한히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409a18-28

6. 더구나¹⁸ 선은 점으로 나눌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떻게 이런 점들이 그의 신체로부터 분리되거나 떨어져 나갈 수 있겠는가?

409a28-30

II 주요개념

스스로 운동하는 것은 ‘운동자’이면서 운동을 부여받는 ‘피운동자’이다. 스스로 운동하는 영혼도 이 두 요소를 함께 갖고 있어야 한다. 단일자는 ‘나눌 수 없고 상이성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단일자는 두 요소를 함께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영혼이 될 수 없다.

영혼이 수라면 영혼도 수의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영혼은 수일 수 없다. 수는 위치를 점한 ‘단일자’, 즉 점이다. 점은 운동하여 선이 된다. 수 즉 영혼이 운동하여 선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혼은 수가 아니다.

III 토마스 아퀴나스 주석

1. 크세노크라테스는 영혼이 <스스로 운동하는 수>라고 정의한다. 이런 견해의 불합리성은 ‘움직인다’는 의미규정과 영혼을 수라는 본 데 있다. 비판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째 이 정의가 영혼 자체 즉 영혼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408b32), 둘째 A5 장 두 번째 문단에서 이 정의가 영혼의 속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A5 409b11이하).

이 정의가 부적절함을 여섯 개의 논변으로 보여준다.

논변 1; 영혼은 스스로 운동하는 수이다. 수는 단일자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영혼은 스스로 운동하는 단일자로 구성되어 있다. 스스로 운동하는 것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즉

17) 연장된 크기를 가진 물체.

18) 영혼은 불멸이라고 믿는 크세노크라테스에게 영혼은 신체에서 분리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은 점으로 나눌 수 없고, 짧은 선으로만 나눌 수 있고, 점(크세노크라테스가 *μονάς*라고 한)은 신체에서 떼어낼 수 없으며 불멸이다.

하나를 운동자이고 다른 하나는 피운동자이다(Physics, VIII, 5장 257a30이하). 그래서 단일자 또는 점은 두 부분 즉 운동자와 피운동자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영혼은 스스로 운동하는 수가 아니다.

‘나눌 수 없는 것이면서 상이성이 없는 것’(단일자)은 저 두 부분으로 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단일자는 한편으로는 ‘운동하고’(운동자) 또 한편으로는 ‘운동을 부여받는다’(피운동자) 방식으로 스스로 운동한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운동자와 피운동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므로 단일자안에 함께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영혼은 <스스로 운동하는 수>가 아니다.

2. 논변 2; 영혼은 수이고 단일자로 되어 있다고 하자. 영혼이 수라면 이 수는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영혼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단일자이다. 즉 점이다. 플라톤주의자들에 따르면 점이 선을, 선이 면을, 면이 입체를 만든다. 그래서 만일 영혼이 스스로 운동하는 수라면, 각 단일자는 스스로 운동한다. 그런데 그러한 점이 선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영혼에 적용하게 하면, 영혼이 운동해서 얻은 결과가 생명이 아니라 선(線)이 된다. 그러나 영혼의 운동결과가 선이라는 결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영혼은 스스로 운동하는 수가 아니다.

3. 논변 3; 영혼이 수라면, 영혼도 수의 본질과 속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어떤 수에서 단일자를 빼거나 더하면, 그 수는 변한다. 3에 1을 더하면, 4가 되고 3과 4는 다른 종류이다. 반면 3에서 1을 빼면 2가 남는다. 형상을 통해서 사물이 특정한 모습을 띠게 되듯이, 생명체는 영혼을 통해서 특정한 모습을 갖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이 수라면 단일자를 더하거나 빼면 다른 종류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사실 식물이나 절지동물을 여러 부분으로 나눌 때, 각 부분들은 계속 살아있으며 다른 종류로 바뀌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혼은 스스로 운동하는 수가 아니다.

4. 논변 4; 영혼은 수이고, 수는 위치를 점한 단일자, 즉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할 경우, 데모크리토스에게 영혼은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즉 위치를 점한 단일자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양적인 존재이다.

그렇다면 영혼은 스스로 운동하는 수이다. 따라서 영혼은 스스로 운동하는 단일자(점)로 구성되어 있다.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는 양적인 점이라고 하자. 만일 영혼이 스스로 운동한다면 이 점들도 스스로 운동할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운동하는 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두 요소인 운동자와 피운동자를 함께 갖고 있다. 그런데 단일자는 운동을 일으키는 원동자로서 운동자가 있어야 한다. 생명체에서 운동자는 영혼이다. 수에서 운동자도 영혼이다. 수에서 운동자는 단일자이다. 따라서 영혼은 피운동자가 아니라 운동자이다. 따라서 영혼은 스스로 운동하는 수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오히려 영혼은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자이어야 할 것이다.

5. 논변 5; 크세노크라테스의 주장에 따르면 영혼은 단일자이다. 단일자들은 위치상 서로 구별이 될 뿐 아무런 차이점도 없기 때문에 점이다. 그런데 점은 신체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든 신체는 그 자신의 점을 갖는다. 그러면 영혼으로서의 점은 신체로서의 점과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다르다면, 신체의 모든 점에 영혼으로서의 점이 위치를 점해야 할 것이다. 결국 신체전체의 곳곳에 두 점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차지할 것이다. 같은 장소에 두 점이 있을 수 있다면, 무한의 점도 있지 않겠는가? 어떤 것 X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나눌 수 없는 것’이면, 그 어떤 것 X도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수가 점점 커진다고 할 때, 그에 상응해서 수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도 점점 증가할 필요는 없다. 두 점이 즉 신체의 점과 영

혼의 점이 나눌 수 없는 자리에 있다면, 그 곳에 무한 수가 없다고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반면 신체의 점과 영혼의 점이 같다면, 모든 신체는 점을 갖고 있으므로 모든 신체는 영혼을 갖고 있다. 이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영혼은 스스로 운동하는 수가 아니다.

6. 논변 6; 크세노크라테스의 이론에 따르면 영혼은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은 분면 신체(입체성을 가진)에서 떼어 내서 분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선은 면에서 분리할 수 없고, 점은 선에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영혼의 경우에는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혼은 점이나 수가 아니다. 따라서 크세노크라테스의 정의는 본래 부당하다.

13 수로서 영혼 · 엠페도클레스의 인식론(1)
(A5 409a31-410a22)

I 원전

1.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영혼-수 이론은 어떤 관점에서는 영혼을 미세한 것(σῶμα)으로 놓는 사람들의 주장과 같고, 어떤 관점에서는 영혼에 의한 운동을 주장한 데모크리토스의 이론이 가진 고유의 불합리성이다. 왜냐하면 만일 영혼이 감각으로 지각하는(αἰσθανομένω) 모든 신체안에 들어 있다면, 영혼도 일종의 신체라고 할 때 동일한 한 장소에 두 신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영혼을 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수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라면 즉 신체안에 있는 점들의 수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라면, 한 점 안에 수많은 점이 들어있다고 보거나 아니면 모든 신체가 영혼을 가졌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데모크리토스가 말하듯이, 동물은 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미세한 구형이나 거대한 단일자에 대해 말하거나 또는 단순히 운동하는 단일자라고 말하거나 대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어떤 경우이든 동물은 단일자들이 운동하기 때문에 움직인다.

409a31-409b11

2. 운동과 수를 동일한 원리로 결합하는 사람들은 앞서 말한 불합리성 이외에 다른 많은 불합리성들도 겪게 된다. 그들이 영혼의 본질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일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영혼의 속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일도 불가능하다. 이런 설명을 바탕으로 추론(λογισμούς), 감각, 기쁨, 고통 등 영혼의 양태(πάθη)와 활동(ἔργα)을 규명하려고 할 때 그런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409b11-18

3. 영혼을 정의하는 전통적인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이 스스로 운동하므로 가장 근본적 운동자라고 한다. 어떤 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미세한 소체이거나 물질성을 가장 적게 지닌 존재(τὸ ἀσωματώτατον)가 영혼이라고 말한다. 이런 견해들에 대한 논박이나 문제점을 앞에서 간략히 다룬 바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요소들이 영혼을 구성하는가하는 구성 방식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들이 이런 이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영혼이 존재하는 것들을 감각으로 지각하고 각 대상들을 파악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이론에는 불가능한 점들이 들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들이 전제로 놓은 것은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을 안다>는 것이다. 그들은 마치 영혼이 곧 사물과 같은 것이라고 전제한다.¹⁹⁾ 그러나 이런 요소들만 유일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많은 것들이 있으며, 심지어 요소로 구성되는 것들이 분명히 무한하게 있을 수 있다.

19) 영혼과 사물의 구성요소가 유사해야 영혼이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

각각의 사물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영혼이 파악하고 감각으로 지각한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영혼은 결합체 전체(σύνολον)²⁰, 예를 들어, 신적인 것이나 사람, 살이나 뼈 또는 그 외의 결합체를 어떤 것으로 파악하고 감각할까? 사실 이들 결합체는 구성요소를 아무렇게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듯이 엠페도클레스는 뼈가 일정한 비율(λόγος)과 배합(συνθέσις)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거대한 동공(洞空)이 있는 자비의 대지

물과 빛의 여덟 부분 중에서 둘을 취하고,

불의 신²¹)으로부터 넷을 취하니, 그리하여 흰 뼈가 생겼다네.

구성요소들이 일정한 비율과 배합으로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요소들이 영혼안에 들어 있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각각의 요소들은 유사한 것을 알아야 하는데, 뼈나 사람 등이 영혼 안에 들어 있지 않다면 뼈나 사람을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도대체 영혼 안에 돌이나 사람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탐구하려는 사람이 있을까? 좋음과 좋지 않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같은 이런 식의 물음을 적용할 수 있다. 409b19-410a13

4. 그런데 우리는 ‘존재’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존재는 실체범주인 개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양, 질 및 다양한 속성범주에 따라 존재를 가리키기도 한다. 영혼은 이 모든 범주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물론 모든 범주가 공통의 요소를 갖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면 영혼은 실체에 속하는 요소들로서만 이루어지는가? 그렇게 본다면 영혼은 다른 범주에 속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니면 범주들은 각각 자신의 고유한 요소와 원리를 갖고 있고, 영혼은 그러한 요소와 원리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해도 될까? 그렇게 보면 영혼은 양과 질 그리고 실체이어야 한다. 그러나 양이 아닌 실체가 양적인 요소에서 나오는 일은 불가능하다. 영혼이 모든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난점이 따라온다. 410a13-22

II. 주요개념

영혼이 ‘일종의 신체’라면, 두 신체, 즉 영혼으로서 신체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로서의 신체가 같은 장소에 있게 된다. ‘일종의 신체’에는 미세소체, 단일자, 점 등이 있다.

수와 운동으로 영혼을 정의하면 이 정의의 결합은 영혼의 속성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본질의 정의가 바르면 속성에 대한 정의도 바르다.

영혼이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전제는 영혼과 사물의 <유사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물의 구성요소와 영혼의 구성요소가 유사해야 한다.

<존재는 여러 가지로 말해진다.> 여러 가지로 존재를 분류한 것이 범주이다. 구성요소들도 범주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구성요소는 실체일 수 있고 그 외 다른 범주에 속한 속성들을 포함할 수 있다.

III. 토마스 아퀴나스 주석

1. 영혼을 운동하는 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앞서 영혼이 신체의 일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즉 영혼이 미세한 원자로 구성된 일종의 신체라고 하면, 두 종류의 신체가 같은 장소에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은 감각지각이 일어나는 모든

20) 여러 요소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단일한 전체’이다.

21) 헤파이스토스

곳에 있으며 신체의 모든 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혼이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409a18-28) 두 점 또는 심지어 무수한 점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혼의 점과 신체의 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결과에 이른다. 만일 영혼의 점과 신체의 점이 다르면, 신체는 점을 포함해야 하므로 그 신체는 영혼을 포함하게 된다.

데모크리토스와 같이 영혼이 스스로 움직이고 영혼에 의해서 신체가 움직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도 불합리성이 들어 있다. 데모크리토스는 영혼이 나눌 수 없는 구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신체를 움직이게 한다고 말한다. 이 진술에 따르면 결국 나눌 수 없는 구형의 신체(미세한 것)가 신체 전체를 움직이게 한다.

수가 동물을 움직이게 하고 점이 동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주장에도 동일한 난점이 담겨있다. 구형이나 단일자의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형의 미세소체나 단일자의 운동이 곧 영혼의 운동이라고 보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므로, 구형소체의 크기나 단일자의 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영혼의 활동이나 양태 즉 영혼의 속성에 관한 정의에서도 난점이 있다. 영혼에 대한 정의는 본질과 속성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데, 본질적 정의에 결함이 있으면 속성에 대한 정의도 결함이 따른다. 영혼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영혼의 정의에서 수와 운동을 결합시킬 때, 본질에 대한 정의에 결함이 있으면 속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수와 운동은 영혼의 본질에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혼의 속성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와 운동으로 영혼의 정의에 접근하는 이들은 결코 영혼에 대해서 어떤 도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수와 운동을 영혼의 정의의 본질로 놓으면, 속성에 대해 살펴보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즉 추론, 감각, 고통과 쾌락 등을 영혼의 활동이나 양태 등 속성을 수와 운동에 기반해서 규명하기는 어렵다.

3. 초기 철학자들은 영혼을 세 가지 방식으로 탐구한다. 즉 운동, 인식 및 비물질성을 영혼의 본성으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앞에서 운동과 관련된 영혼 그리고 신체가 없는 영혼의 탐구에 대해 논박을 전개하였다. 여기서는 영혼의 인식에 관해서 비판적인 검토를 할 차례이다. 즉 모든 것이 영혼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영혼은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는 이들의 주장을 논박한다.

이들의 인식은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을 안다>는 것이다. 인식대상과 영혼이 같아지는 것으로 일종의 동화(同化)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영혼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아는가? 모든 것은 복합체와 관계를 맺으며, 영혼은 모든 사물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물이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면, 영혼도 역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감각과 인식이 가능하다. 이런 이론의 대표자는 엠페도클레스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사물들이 많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박대상이 되었다.

엠페도클레스를 논박하는 논변은 10개이다. 논변 1; 유사성에 의해서 인식이 가능하므로 영혼은 인식의 모든 대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엠페도클레스는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는 난점과 불합리성이 들어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물에 포함된 모든 것들이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물 안에는 요소 이외에 비율도 있고, 본질도 있으며 무수한 속성들도 있다. 예를 들어 뼈의 경우, 구성요소와 일정한 비율 그리고 뼈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엠페도클레스는 뼈가 8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고 하지만, 각 뼈의 8부분은 동등한 비율로 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지구에 대해서 그는 2부분 즉 대기와 물로 분포되어 있고, 불은 넷이다. 불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흰 뼈가 생겨났고, 지구는 건조함에서 생겨났다. 따라

서 복합물에는 요소 이외에 비율과 일정한 유형이 들어 있다. 수많은 것들이 복합물에 들어 있다면, 영혼 안에 사람과 돌이 들어 있다고 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반면 요소만 영혼 안에 있다면 비율도 알지 못할 것이고 복합체도 알지 못할 것이다. 요소로만 되어 있다면 복합체인 신이나 사람 또는 뼈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4. 논변2; 영혼은 요소와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런데 이런 요소와 원리들은 실체 및 속성 범주에 따라 다르다. 영혼을 구성하는 요소와 원리는 실체로서만 되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속성범주들도 포함하는가? 실체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실체만 알 수 있다. 다른 것들도 포함한다면, 영혼은 실체이면서 동시에 양, 질 등 다른 속성이기도 해야 할 것이다.

14 엠페도클레스의 인식론(2)

A5 410a23-411a7

I. 원전

1. 유사한 것(ὅμοιον)이 유사한 것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²²⁾,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에 의해서 감각되거나 인식된다면 그것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감각은 어떤 것의 영향을 받고(πάσχειν) 움직이는(κινεῖσθαι) 것이고, 사고(νοεῖν)와 인식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410a23-26

2. 엠페도클레스의 경우에서 보듯이, 물질적(σωματικοῖς) 요소를 통해 각각의 사물들이 인식되고, 유사한 것과 연관해서 인식된다고 말하는 이들은 많은 난제들과 의혹에 직면하는데, 지금 언급한 내용들이 그런 문제들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동물의 신체안에 있는 것들은 뼈, 근육, 머리칼 등인데 단적으로 말하면 흙의 요소(γῆς)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들은 다른 어떤 대상도 감각하지 못하는 것 같고, 이미 전제한 것이지만 유사한 관계에 있는 것들을 감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410a27-410b2

3. 각각의 원리들²³⁾은 아는 것²⁴⁾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각 원리는 하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모든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모르기 때문이다. 410b2-4

4. 게다가 엠페도클레스에게 신은 가장 적게 아는 최소의 인식자임에 틀림없다.²⁵⁾ 왜냐하면 신만이 알지 못하는 불화(νεῖχος, 투쟁)가 있기 때문인데, 반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모든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410b4-7

22) 참고, 아리스토텔레스, <<생성소멸론>>, I 7, 323b1 :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에 의해서 결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유사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능동적이거나 더 수동적이지 않기 때문이다(왜냐하면 어느 한 부분에 속하는 속성은 다른 부분에 속하는 속성과 같은 정도를 지닌 것이고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유사하지 않은 것들은 각각의 본성에 따라 움직이고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23) 각각의 요소들.

24) 곧바로 알아차린다는 일반적 의미 ‘파악’(σύνεσις)을 뜻함.

25) 필로포누스(Philoponus, 181. 23-182. 14)는 신(θεόν)을 두 가지로 해석한다. 1) 엠페도클레스가 말하는 스파이로스(Σφαῖρος) 또는 우주로서 이는 친화(사랑)가 승리한 세상으로 불화(투쟁)가 없는 곳을 가리키거나 2) 친화 그 자체를 가리킨다. 필로포누스는 첫 번째 해석을 받아들인다.

5. 일반적으로 ‘만물이 모두 다 영혼을 가진 것은 아닌데’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만물은 요소이거나 또는 구성요소가 하나이거나 여럿이거나 모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물들 각각은 반드시 하나를 알거나 여럿을 알거나 모두를 알아야 한다. 410b7-10

6. 여러 요소들을 단일화하는 것(τὸ ἐνοποιεῖν)²⁶⁾은 무엇인지 물을 수 있다. 요소들은 질료와 일치한다. 이 요소들을 단일화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건 가장 본질적인 원리이다. 영혼보다 더 우월하거나 더 지배력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물며 지성보다 더 낫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지성이 본성상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우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면 요소들은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일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10b10-15

7. 영혼이 존재하는 것들을 감각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영혼이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움직이는 것들 가운데 일차적인 것이 영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누구도 영혼의 모두 종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감각할 수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분명히 어떤 종류의 동물은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다. 물론 영혼이 동물을 움직이게 하는 방식은 장소이동이 유일한 운동방식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지성이나 감각 능력이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식물도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장소이동이나 감각능력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많은 동물들에게는 사유과정(διάνοια)이 없다. 이런 점들을 별개로 제쳐놓더라도, 지성은 영혼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감각도 마찬가지라고 인정하게 되면, 영혼들을 모두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전체를 언급하는 것도 아니다. 이와 똑같은 반론을 오르페우스의 신화에 나타난 논리에 적용할 수 있다. 그 신화에는 ‘영혼은 바람을 타고 숨 쉬며 우주에서 들어온다’고 쓰여있다. 이런 일은 식물의 경우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모든 동물이 호흡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동물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간과하였다. 410b16-411a2

8. 그러나 만일 영혼이 요소로서만 구성되어야 한다면, 영혼이 모든 요소로 구성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대립되는 요소들 가운데 한 요소는 자신뿐 아니라 대립하는 다른 요소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직선을 써서 직선과 곡선을 구별(제다)할 줄 안다. 그 둘을 구별하는 것은 척도(자)이다. 즉 곡선은 자신과 직선을 짚 수 있는 척도가 아니다. 411a2-7

II 주요 개념

영향 받음(πάθη), 유사성, 요소들, 단일화, 지성

III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석

1. 논변3; 영혼은 모든 것을 인식하고, 인식은 유사성의 관계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영혼은 모든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감각과 인식은 일종의 ‘영향을 받는 것’(πάσκειν)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본다면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상반된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결국 감각과 인식은 유사성의 관계에서 성립한다고 말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2. 논변4; 앰페도클레스가 말하는 것처럼, 만일 영혼이 유사성의 관계로서 인식한다면, 요소로서 공기는 공기를 인식하고 다른 요소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동물의 신체는 많은 부분들 뼈, 근육, 머리칼 등 흙의 요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어떤 대상

26) ‘하나로 결합하다’.

을 감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유사성의 이론에 따르면 유사한 어떤 대상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인식은 유사성에 의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은 그러한 물질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3. 논변 5; 원리는 인식할 수 있는 것보다 인식할 수 없는 것이 더 많게 될 것이다. 만일 인식이 유사성에 의해서 성립한다면, 그리고 모든 원리가 자신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유사하지 않아서 아주 단순한 것이라면, 자신 이외의 다른 것을 모를 것이다.

4. 논변 6; 신은 모든 존재들 중에서 가장 무지한 자이다. 엠페도클레스의 이론에 따르면 만물은 네 요소로 환원할 수 있고, 생성과 소멸의 원인인 친화와 불화(사랑과 투쟁)로 환원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하늘을 신이라고 불렀고, 그것은 네 요소와 친화로 구성되어 있다. 불화는 빠져 있어서 소멸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만일 인식은 유사성에 의해 성립한다면, 불화는 신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신은 불화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불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신은 모르는 것이 더 많다.

5. 논변 7; 만일 영혼이 온갖 모든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만물)은 영혼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만물은 요소들 전체로 구성되어 있거나 요소들 일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소나 요소의 결합체로 구성된 것은 무엇이건 신체(물질적 존재)이다. 따라서 모든 물질적 존재는 즉 만물은 영혼을 갖고 있다. 이 말은 허위다.

6. 논변 8;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고 상반된 것도 있다. 그런데 상반된 요소가 결합체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요소들을 포함하고 단일화하는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만일 영혼이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면 영혼 안에는 그 요소들을 단일화하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영혼 안에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의심의 여지가 크다. 왜냐하면 영혼보다 더 낮고 귀한 무엇이 영혼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 기껏해 봐야 그것은 가장 우월하고 신적인 것으로서 '지성'이라고 간주해야 합리적이다. 더구나 이 다른 무엇이 요소들보다 더 우월할 것이 분명함에도, 엠페도클레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요소들이 모든 존재들 가운데 일차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영혼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7. 논변 9; 운동의 관점이나 감각의 관점에서 영혼을 탐구하는 이들(엠페도클레스를 포함)이 가진 결함을 지적한다. (1)장소이동으로 영혼을 정의하는 사람들의 논변에는 결함이 있다. 식물이나 이와 유사한 부류의 식물 등 많은 생명체들은 장소이동을 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2) 지성이나 감각에 의해 영혼을 정의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결함이 있다. 왜냐하면 많은 생명체들은 감각활동을 하거나 지적 사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소이동, 지성 그리고 감각이 한 영혼안에서 따로 독립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모든 영혼이 지적인 것이 아니므로 저 견해를 영혼 일반에 적용할 수 없을 것이고, 지적사유와 감각만이 영혼의 유일한 기능이 되므로 어떤 한 영혼의 전체에 적용할 수도 없을 것이다.

오르페우스는 무세우스와 리누스와 함께 활동한 시인이자 신학자(철학자)이다. 그는 탁월한 연설가로서 부드러운 선율로 냉혹한 마음조차도 감동시킬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세 사람의 뒤를 이어 탈레스를 비롯한 7현인이 등장한다. 오르페우스는 공기는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소위 생명체의 영혼은 그의 신체가 숨쉬게 하는 공기에 다름 아니라고 보았다.

8. 논변 10; 엠페도클레스는 요소들의 결합으로서 영혼의 인식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어떤 것을 안다고 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원리에 의존해 있다.

따라서 영혼이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요소들이 곧 원리라고 놓을 필요가 없고 기껏해야 두 가지 원리가 있을 뿐이다. 완전성과 불완전성의 원리로 구성된 복합체를 보면 원리가 많은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성을 척도로 삼아 불완전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속성상 결여를 포함한 대립자에서도 마찬가지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직선의 개념으로서 직선과 곡선을 알 수 있는데, ‘자’ 즉 척도는 양쪽을 모두 다 안다. 그러나 곡선은 자신도 모르고 직선도 모른다. 따라서 영혼은 모든 요소로 구성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단 두 요소 불과 흠이면 족하다. 불로서 냉기와 뜨거운 것들을 인식하고, 흠으로서 건조한 것과 습한 것을 인식한다.

15 영혼없는 요소
(A5 411a7-411a25)

I 원전

1.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천지만물과 혼합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분명 탈레스가 만물이 신성(θεῖον)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한 이유이기도 하다. 411a7-8

2. 그런데 이것은 몇 가지 난점을 갖고 있다. 영혼이 불이나 공기안에 들어 있을 때는 왜 생명체(ζῷον)²⁷⁾를 만들지 못하고, 요소들과 결합한 복합체²⁸⁾ 안에 있을 때에는 생명체를 만드는가? 더구나 불이나 공기안에 있을 때에는 더 우월한 상태²⁹⁾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공기안에 있는 영혼이 왜 생명체안에 있는 영혼보다 더 우월하고 더 불멸하는지를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쪽으로 탐구하더라도 저 물음은 어색하고 불합리하다. 불이나 공기가 생명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그리고 생명체안에 영혼이 들어 있는데도 생명체라고 부르지 않는 것도 어색하다. 411a9-16

3. 이들은 천지만물이 동질적인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유로 요소들안에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만일 동물이 요소를 갖게 됨으로써 영혼을 가진 생명체가 된다면, 영혼은 그 부분들과 동질적이라고 말해야 한다. 411a16-20

4. 만일 영혼이 이질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도³⁰⁾ 흡입된(διασπόμενος)³¹⁾ 공기가 동질적이라면, 영혼의 일부는 공기의 일부에 존재해 있을 것이고 일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영혼은 동질적이거나 또는 천지만물의 어떤 곳에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논의로부터 영혼이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하거나 운동한다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도 참도 아님이 분명해 졌다. 411a20-26

II 주요개념

만물 : ‘전체’라는 의미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천지만물’을 일컫는다.

공기, 불 : 요소의 하나이기도 하고 요소들의 결합체이기도 하다.

동질성과 이질성: 동일한 성질을 소유하거나 그렇지 않음.

27) 원래는 동물을 가리키지만 식물까지도 포괄하는 의미에서 생명체다.

28) 살과 피와 같은 육체적 구성물들.

29) 더 나은 상태(βελτίον).

30) 영혼 전체는 섭생, 감각 및 지성의 부분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질적이다.

31) 원래 의미는 ‘나뉜다, 갈라지다, 분열되다’로서 호흡할 때 일부가 들어오거나 나온다.

III 토마스 아퀴나스 주석

1. 영혼이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난 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이 요소들과 혼합되어 있다는 일부의 주장을 검토한다.

어떤 이들은 영혼이 만물들과 혼합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만물은 단순한 요소들로 되어 있건 복합체로 되어 있건 상관이 없다. 이런 주장은 탈레스가 만물이 신들로 가득하다고 말했던 것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탈레스의 생각은 이렇다 : 천지만물은 살아있고 그러한 생명성은 신적인 것이다. 영혼이 생명체가 있는 모든 곳에 있듯이 신은 천지만물이 있는 모든 곳에 있다. 따라서 천지만물은 신성으로 가득하다. 아마 이런 것이 우상숭배의 원천일 것이다.

2. 이런 주장에는 난점이 있다. 영혼이 불이나 공기안에 있다면, 왜 그런 요소(불이나 공기)들이 생명체를 이루지 못하는지를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데 요소들이 결합한 복합체는 영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합체는 분명 생명체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단순 요소들이 있는 곳에서 영혼은 한층 더 우월한 힘을 지녔다고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소들안에 있는 영혼이 왜 복합체 안에 있는 영혼보다 더 우월하고 더 불멸하는지 의혹이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복합체 안의 영혼은 인식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데 반해서 요소들 안에 있는 영혼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이나 공기가 생명체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거니와 경험에도 위배되어서 합당한 근거로 지지를 받기 어렵다. 생명체에는 영혼의 소유가 필수적인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주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영혼의 소유가 생명체에서 필요하지 않다면 영혼을 소유한 생명체나 그렇지 않은 생명체나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요소안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요소가 단순한 것인데 요소로 된 부분과 천지만물은 동일한 성질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공기)이 호흡할 때 동물의 신체와 접촉하는 것이 곧 생명체의 원인이자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관찰함으로써, 그들은 천지만물의 영혼은 부분들과 동일한 성질을 가졌다고 생각한 것이다. 즉 공기를 포함하는 천지만물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4. 이들이 전제한 것은, 어떤 동물이 흡입하거나 이동시킨 공기의 일부는 전체적으로 동질적이기 때문에 동물 그 자체의 영혼은 말하자면 만물의 영혼의 일부이다. 이런 전제는 분명 허위이다. 왜냐하면 공기의 영혼은 생명체에 끊임없이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존재하는데(불멸하는데), 특정의 동물이 가진 영혼은 존재하지 않기(불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공기의 모든 부분들 즉 들어 온 공기나 나간 공기의 모든 부분들이 동질적이라면, 영혼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이점은 논박된 것이다. 그런데 영혼의 부분들이 이질적인데 공기의 부분들은 동질적이라면, 영혼은 만물 즉 공기 전체의 모든 곳에 있지 않게 된다. 이것은 모든 공기가 영혼을 가졌다는 전제에 어긋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찍이 제시한 바와 같이 ‘영혼이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식과 운동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고 참도 아니라고 결론짓는다.

16 영혼의 단일성

(A5 411a26-411b30)

I 원전

1. 의욕과 바람 등 일반적 욕망뿐 아니라 인식, 감각, 사고는 영혼에 속한 일이고, 생명체는 영혼에 의한 공간이동, 성장, 완숙, 소멸이 일어나므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이런 일들은 각각 영혼 전체(ὅλη τῆ ψυχή)³²⁾의 속성인가? 즉 우리는 영혼 전체로서 인식하고 감각하고 운동하며 영향을 주고 받는가? 아니면 그러한 속성들은 각각 영혼의 다른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가? 생명체의 경우 각각의 속성들은 어느 한 부분을 필요로 하는가, 하나 이상의 몇몇 부분을 필요로 하는가 또는 영혼 전체를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어떤 다른 원인이 있는가?
411a26-411b5

2. 영혼의 어느 한 부분은 인식을 맡고 또 다른 부분은 욕망을 맡고 있으므로 영혼은 나눌 수 있는 것(μεριστήν)이라고 어떤 이들은 말한다.
411b5-6

3. 영혼이 본성상 나눌 수 있다면, 무엇이 대체 영혼을 함께 묶는 것(συνέχειν)일 수 있겠는가? 확실히 신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영혼이 신체를 함께 묶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이 될 것이다. 사실 영혼이 떠나면, 신체는 숨을 거두고 부패한다. 만일 신체를 하나로 만드는 어떤 다른 것이 있다면, 이 다른 것은 오히려 영혼이다. 이 다른 것에 대해 그것이 하나인지 여러 부분들로 되어 있는지를 물을 수 있다. 만일 하나라면, 왜 그것을 바로 영혼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만일 여럿으로 나눌 수 있다면, 다시 부분들을 함께 묶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는데, 이 물음을 무한히 계속할 수는 없지 않은가?
411b6-14

4. 영혼의 부분들(μόρτια)에 대해서 ‘그것들은 각각 신체안에서 어떤 능력(δύναμιν)을 발휘하는가?’라는 물음을 탐구할 수 있다. 만일 영혼의 전체가 신체의 전체를 하나로 묶고 있다면, 영혼의 각 부분이 신체의 일부분을 묶고 있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지성은 신체의 어떤 부분을 묶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묶고 있는지를 상상하는 것조차도 어렵다.
411b14-19

5. 식물은 분리되어도 살아있고, 어떤 동물(곤충)들은 몸체가 분리되어도 살아있다. 분리된 것들은 수에서 같은 영혼이 아니라 종(種, εἶδει)³³⁾에서 같은 영혼을 가진 것처럼 살아있다. 왜냐하면 분리된 양쪽 부분들은 각각 감각능력을 소유하며 일정 시간동안 장소이동을 하기 때문이다. 분리된 부분들이 오래 살아있지 않더라도, 결코 이상할 것은 없다. 그 이유는 분리된 것들은 타고난 본성(φύσιν)³⁴⁾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관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분리된 것들 각각에는 영혼의 부분들 전체가 들어 있고, 분리된 것들안에 있는 영혼들은 ‘서로 그리고 전체로서’(ἀλλήλοις καὶ τῆ ὅλῃ) 동질적이다. ‘서로’ 동질적이라는 것은 마치 분리되지 않은 것과 같다는 의미이고, ‘전체로서’ 동질적이라는 것은 나눌 수 없는 단일성을 가진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411b19-27

6. 식물의 원리도 일종의 영혼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것은 식물과 동물이 공통으로 가진 유일한 원리이기 때문이다. 식물의 원리는 감각의 원리와 독립되어 있다.³⁵⁾ 비록 식물의

32) ‘전체 영혼’으로 영혼을 구성하는 부분들 전체를 가리킨다.

33) 예컨대, 메뚜기의 몸체에서 다리가 떨어져 분리되었다면, 양쪽의 영혼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숫적으로 같지는 않고, 메뚜기라는 종이 지닌 영혼에서는 같다.

34) 분리되기 이전의 몸체 전체는 타고난 본성으로서 ‘자생력’을 갖고 있다. 분리된 이후에도 살아 움직이기는 하지만, 원래의 자생력을 모두 구비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분리된 상태에서는 생명력을 더 오래 지속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임은 분명하다.

35) 식물의 원리는 섭생의 원리이고, 감각의 원리는 외부 대상을 파악하는 식별활동을 가리킨다.

원리를 갖지 않으면서 감각의 원리를 가진 것은 없지만, 식물의 원리는 감각의 원리에서 독립해서 존재한다.

411b27-30

II. 주요개념

1. 영혼의 속성, 영혼 전체와 부분
2. 나눌 수 있는 것(부분을 가진 것)
3. 함께 묶는 것(συνέχειν)
4. 신체의 능력(δύναμις) 또는 활동
5. 분리된 부분들, 종에서 동질성

III. 토마스 아퀴나스 주석

1. 아리스토텔레스가 선대들의 이론을 분석 비판한 다음에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우선 영혼의 활동 즉 영혼의 속성은 어떤 것들인지를 알아야 한다. 감각, 인식, 사고, 의욕, 바람, 공간이동, 성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활동의 유형은 크게 섭생, 감각 및 지적 능력으로 나뉜다.

섭생(생육)능력은 열과 냉 및 이와 비슷한 물질로서 능동적 또는 수동적인 성질로서 움직인다. 감각능력은 육체의 감각기관에 의존해 있지만 감각활동을 위해 감각의 대상이 가진 성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지적능력은 육체의 감각기관도 필요하지 않고 감각대상의 성질도 필요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지적능력은 완전히 비육체적인 방식으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혼 전체 범위에 걸친 유형들을 검토해 보면, 다섯 가지로 즉 섭생, 감각, 장소이동, 욕망 및 지적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그는 다음의 두 가지 물음을 제시한다. 1) 감각, 인식 그리고 의욕과 바람 등 욕망을 장소이동이나 성장, 소멸과 함께 놓을 수 있는 활동인가, 즉 이들 각각의 활동들은 모두 영혼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이어서 각 부분들이 모두 감각과 인식 또는 욕망 등을 맡고 있는가 아니면, 각 부분들이 자신의 고유한 활동을 갖고 있는가? 2) 각 활동의 영혼에서 자신의 고유한 부분을 맡고 있다고 할 때, 일반적인 생명체들도 마찬가지인가? 각 활동은 각각 고유한 부분을 가지는가? 아니면 몇몇 부분을 공유하는가, 아니면 영혼 전체에 의존하는가? 또는 다른 어떤 원인을 갖고 있는가?

2. 위의 물음들을 하나씩 검토한다. 우선 그는 영혼이 부분으로 나뉜다는 설[영혼의 가분성(可分性)]을 논박한다. 어떤 이들은 영혼이 나뉘어 있어서 어떤 부분은 인식하고 어떤 부분은 욕망을 맡은 곳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마치 감각은 뇌안에 있고, 생명력은 심장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은 입장이다.

이런 주장은 부분적으로 맞지만 부분적으로는 잘못이다. 영혼이 여러 부분들을 잠재적으로 소유한다고 놓고, 영혼의 부분들과 능력이 따로 구별되어서 어떤 부분은 감각하고 어떤 부분은 인식을 담당한다. 각 부분의 능력은 전체에 속한 전반적인 능력으로 영혼을 가리킨다는 의미에서는 맞다. 그러나 영혼 전체를 양적으로 나누어 접근해서 영혼의 각 부분들이 일정한 크기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면 잘못이다.

3. ‘영혼의 가분성’ 전체를 논박하는 논변 셋을 소개한다.

논변 1 : 상이한 것들을 묶어주는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단일화가 가능하다. 만일 하나의 신체가 여러 영혼들을 소유한다면, 그것들을 함께 묶어주는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없으므로 저 전체는 근거가 없다. 논증은 이렇다. 영혼을 포함하고 단일화하는 것은 신체이거나 다른 어떤 것이라야 할 것이다. 신체는 물론 아니다. 영혼이 떠나면 신체는 소멸되기 때문이다. 신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단일화하고 조절능력을 가진 영혼에 연관되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영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단일화하는 영혼은 본래 하나인가,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는가? 여러 부분이라면 그것들을 단일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묻게 된다. 하나라면 그것을 바로 영혼이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따라서 영혼은 그들의 주장하는 대로 양적인 크기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 논변2 : 영혼의 각 부분들이 신체의 각 부분들안에 있다면, 영혼의 각 부분이 하는 활동은 신체의 고유한 부분 또는 기관을 갖는다. 그러나 지성은 어떤 특정한 신체의 기관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영혼의 부분들이 각각 고유한 신체의 부분들을 가진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5. 논변3 : 영혼의 각 부분이 가진 능력(활동)이 신체에서도 고유한 부분을 갖고 있다면, 한 부분이 여러 능력을 보유하거나 또는 생명체의 여러 부분이 동일한 능력을 가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험에 따르면 어떤 생명체에서 한 부분은 여러 능력을 보유하고, 전체로서 그리고 각 부분에서 종에서 동일한 영혼을 갖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식물이나 일부 절단된 동물의 부위에서 절단된 뒤에서 계속 살아 있고 감각을 지탱하며 일정시간 동안 움직이기도 한다. 자생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몇몇 능력이 여러 부분들에서도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이고, 특히 각 부분에 나타나는 활동이 서로 같고 전체로서도 같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체의 여러 부분에 따라 영혼이 나뉘는 것은 아니다.

6. 식물의 영혼, 즉 섭생의 영혼은 지구에 사는 생명체에서 가장 기초적인 존재인 것 같다. 식물없이는 다른 어떤 것도 살아갈 수 없다. 생명 활동의 유형이 다르기는 하지만, 모든 생명체는 섭생의 원리를 공유한다. 동물과 식물도 섭생의 영혼을 공유한다. 감각이나 지성이 없이도 존재하는 영혼이며 감각이나 지성이 아니다. 그럼에도 어떤 동물도 섭생의 영혼이 없이 감각이나 지성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촉각이 감각에 필요한 조건이듯이 섭생은 생명에 필요한 조건이다.[3권 12, 13장]. 생명체가 이런 원리로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생명이 처음으로 출현하는 곳이다.